



노동자
민중당

분회통신_10호 (2019.01.07.)

노동자 직접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구조맹’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장-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는다. 그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한겨울을 지나 이듬해 초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시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했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된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희생된 김용균 청년은 2016년 5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러져간 19살 김 군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를 표방한다고 해서 일체의 비판과 투쟁을 자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지지할 건 지지하지만 비판도 하고 투쟁도 하는 것이 촛불항쟁의 주체다운 자세다. 그렇다고 하여 촛불항쟁 이전의 타성대로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우파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몰려나라!”고 항의·규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설령 몰려난다고 한들 그 다음에 더 나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관적 환상과 즉자적 비난을 뛰어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화를 국내 문제로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에 구조화되어 있는 근본적 모순을 간과한 피상적인 생각이다. 예컨대 한국 경제는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의 하위 종속 구조에 편입돼 있다. 큰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아서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2005년)에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했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선부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 곧 재벌체제의 개혁·해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며 한미동맹을 자주적인 한미관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을 해결하는 일은 5년 단임제 정부에게 벅찬 난제일 수밖에 없다. 설령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민주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사상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 갇힌 반의반쪽의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구조맹’이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분회탐방

경기노동자민중당 건설토목건축현장위원회 ‘울타리’분회

의정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울타리 분회는 2016년 5월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경기도당의 첫 분회장 학교를 마친 직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분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만으로도 힘든데 진보정당 활동까지 해야 된다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무척 당황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분회를 만들고, 매월 한 번씩 당 분회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경기노동자민중당 소식지를 건설 노동자 당원 맞춤형으로 편집하면서 고군분투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여전히 당 분회가 쉽지 않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머리를 싸맷지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건설노동자 후보 이재명 동지와 함께 지역을 누비면서 현장 조합원들이 민중당의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중봉사단을 출범하게 되었는데,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서 뿌듯했습니다.

울타리 분회는 당원들의 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고, 분회모임을 할 수 있는 ‘소분회장’ 육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분회활동에 큰 힘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지금도 완성형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변함없는 것은 분회장 학교에서 배운대로 ‘매월 1회 분회모임 사수!’입니다. 건설노동자의 독심으로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투쟁!



현장소식

30년 전 현대중공업 128일 총파업 기록을 넘긴 고강알루미늄 총파업 투쟁

-윤장혁 울산금속현장위원장/금속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회장-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 지회(지회장 강태희, 민중당 당원)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오늘로 131일째 전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고강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2017년 하반기 은행권 출신 대표 이사가 부임하자마자 회사 생존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삭감, 식당 외주화, 복지후생부분 폐지 및 유보 등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휴업, 사택매각, 각종 단체협약과 노·사간 맺은 합의를 위반하며 노동탄압을 진행하고 2018년 단체교섭에서는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단체협약 32개 개약 안을 강요하더니, 급기야 6월15일에는 31년간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버랑 끝으로 내몰았다.

고강알루미늄은 1978년 현대건설로 시작하여 2005년 알루코 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 6번이나 회사가 바뀌며 작업복을 갈아입은 바 있으며, 그 과정 구조조정의 고비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하며 지금까지 공장을 지켜왔다.

고강알루미늄을 인수한 알루코그룹(박도봉 회장)은 KPT라는 조그만한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다 2003년 동양강철 2005년 현대알루미늄(현 고강알루미늄)을 인수하며 매출 1조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이면에는 동양강철 노동자

들과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알루코 그룹 박도봉 회장의 노동탄압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 사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5개월째 힘겨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4개월째 빈 월급봉투로 건디며, 자녀의 결혼식 일정까지 미루어가며 100여명 조합원 단 한명의 이탈자 없이 간고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며칠 전 파업투쟁 중에 금속노조울산지부와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 진행된 정년퇴직 조합원들의 정년 퇴임식은 눈물 바다를 이루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동자다운 감동적인 정년 퇴임식 이였다.

1988년-89년 현대중공업 128일 총파업 기록을 꼭 30년 만에 넘어서는 5개월째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은 단 한명의 이탈자 없이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정치운동에도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평균나이 만55세 노동자들이 어려움에도 비타협적으로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과 진보정치의 승리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이다.

민중당 당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형인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염원한다.



현장소식

지하철 9호선 프랑스 위탁 운영사 퇴출과 공영화를 위해 서울시 결단을 촉구하는 투쟁 ‘서울시는 국민혈세 유출하는 9호선 프랑스 운영사 퇴출시켜라!’

-김진숙 서울노동자민중당 위원장-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서울지하철은 교통지옥인 서울에서 그야말로 시민의 발이다.

그런데 1호선~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9호선만 말도 안 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9호선 구간 중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10년간 외국자본은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갔다.**

다단계 위탁구조를 줄이면 중복비용 600억 원(잔여 위탁기간 5년간 발생 예상치)이상이 절감된다. 자본금 10억에 불과한 프랑스 위탁운영사가 막대한 이익을 빼돌리는 동안 서울시는 재정보존을 위해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 비용을 절약하여 적정 인원을 확충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시설설비 투자를 주장해왔다.

9호선은 혼잡도 237%의 ‘지옥철’.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다 탑승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제대로 정지 못함, 승객압사,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와 성폭력 우려는 한해 두해 일이 아니다. 기관사들은 새벽 2시~4시에 출퇴근하며 신체리듬이 파괴된 채 1인 승무로 수면장애와 사고 압박에 시달리나 사측은 인건비 절감 이유로 인력 총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위탁 운영사는 수수료 협상에 대한 본 계약 조건을 합의하지 못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운영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권자이다.

이에 **9호선 운영노조와 대책위는 서울시가 즉각 결단하여 프랑스 위탁운영사와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공영화 단계에 들어설 것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대책위 주요 단체로 함께 활동하면서 당 주관의 촛불집회, 노조와 민중당 공동으로 카드뉴스 제작 SNS 실전, 천막농성 결합, 9호선 라인의 지역위원회에서 역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민중당의 9호선 투쟁에 당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기형적인 9호선 1단계 다단계 하청 구조>



정책과 논점

2020년, 국회의원 뽑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권오혁 중앙당 전략기획국장-

* 촛불혁명으로 정부는 바꿨는데, 국회는 어떻게 바꾸나?

우리나라의 선거는 돈 선거, 조직선거에다가 흑색선전이 기본이고 여론조작, 개표조작까지 동원되는 반민주적 선거제도와 풍토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정부를 구성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가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오랫동안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왔다.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았으나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부화뇌동하는 한심한 국회에 대한 분노의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회구조로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사회대개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조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벌써 자유한국당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정치권에는 선거제도 개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를 바꿀 의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바른미래,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7당 연석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원은 현행 방식대로 뽑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 전체의석을 당지지율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다. 사표를 방지하고 지지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숫자, 세비문제, 비례의원 비율 등 세부적인 입장들을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지지율대로 국회의원을 배정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를 통합진보당 시절에 대비해보면 아래와 같다.

19대 총선에 연동형 + 총의석(360석)을 적용할 경우 의석비율 변화 예상 표

정당	정당득표율	의석(현재제)	의석비율(현재제)	의석(연동형)	의석비율(연동형)
새누리당	42.8%	152석	50.67%	165석	45.83%
민주통합당	36.5%	127석	42.33%	140석	38.89%
통합진보당	10.3%	13석	4.33%	40석	11.11%
자유선진당	3.2%	5석	1.67%	12석	3.33%
무소속		3석		3석	
합계		300석		360석	

*** 선거제도 개혁은 불발 가능성이 높다.**

-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단식농성을 하는 와중인 12월 15일 여야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입법화하겠다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직후부터 자유한국당이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고 민주당도 의지가 높지 않아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항쟁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민주국회를 만들어 내거나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국회를 만들어내야 가능할 것이다.

***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득표나 지역구 국회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더욱 낮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최선의 방책은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당은 어떻게 하나 정당지지율 최소 3%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요 일정

<민중당 2기 2차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9년 1월 13일(일) 14:00
- 장소 :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당헌 제3장 2절 18조에 따라 2기 제2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보고 안건

1. 당원현황 보고
2. 대표단회의 결과보고
3. 당무위원회 결과보고
4. 계급계층 조직 보고
5. 2020 총선준비를 위한 표적집단 실사 보고

■ 의결 안건

1. 공직 후보 인준의 건
 -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손석형 후보
2. 상설위원회 인준의 건
 - 장애인위원회 / 주거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3. 2019년 민중당 사업계획 승인의 건
4. 2018년 4/4분기 결산안 승인의 건
5. 2019년 1/4분기 예산안 승인의 건

2019.1.4

중앙위원회 의장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